



24-16(통권 974호) 2024.09.13.

경제주평

■ 2025년 한국 경제 전망

- 내외수 균형성장이 필요한 한국 경제

▲ 현대경제연구원

목 차

■ 2025년 한국 경제 전망

- 내외수 균형성장이 필요한 한국 경제

Executive Summary	i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1
2. 전망의 배경	8
3. 2025년 한국 경제 전망	10
4. 시사점	13

Executive Summary**□ 2025년 한국 경제 전망**

- 내외수 균형성장이 필요한 한국 경제

■ 최근 국내 경제 동향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문의 침체로 인해 내수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부문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 경제주체의 심리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내수 부문의 개선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비 부문에서는 고금리와 고물가, 소득 정체 등이 소비자의 구매력을 제약하면서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7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9%,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하면서 소비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항목별로 내구재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준내구재, 비내구재 소비가 모두 침체를 지속하였다.

설비투자 부문에서는 ICT 부문의 투자가 급감한 반면, 비ICT 투자는 크게 확대되면서 설비투자 전반의 성장을 이끌었다. ICT 설비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6% 감소하며 하락세로 전환되었지만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과 자본재수입액이 증가세를 보이며 향후 설비투자의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건설 부문에서는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이 5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을 모두 반등하고 있다. 특히, 건설수주액은 전년 동월 대비 28.4%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 부문에서는 반도체 수출의 회복과 미국 시장의 호조, 그리고 전년도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對미국 수출과 對중국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 품목별로 경기 양극화가 뚜렷한 모습이다.

고용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실업률이 개선되고 구직 단념자의 감소와 신규취업자의 증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산업별로 제조업 및 건설업, 연령계층별로 청년층의 고용 창출력이 하락하고 있어 산업간·연령층 간 고용 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물가 측면에서는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으나, 내수 침체로 인해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은 하락했다. 특히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한은 물가안정 목표치인 전년동월대비 2.0%를 기록한 점은 고무적이다.

최근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미래 불확실성도 확대되면서 가계 심리와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이다. 가계심리지수(CSI)와 기업심리지수(BSI)는 2024년 초반 반등했으나, 최근에는 개선세가 둔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가계와 기업 모두가 현재의 경기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 전망의 배경

(글로벌 경기: 완만한 개선) 글로벌 피봇(pivot)에 의한 금융 및 투자 환경 개선, 주요국 경기 진작책 추진, 제조업 경기 개선 등으로 세계경제는 3% 내외 수준의 중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 경기는 본격적인 통화정책 전환과 적극적인 경기 진작책이 동반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경기 고점을 형성한 기저효과 등으로 성장률이 완만하게 둔화되는 소프트패치(soft patch)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지역과 일본은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와 수출이 동반 회복되면서 경기 개선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흥국 경기는 글로벌 교역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아시아 신흥국 중심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 간 성장 차별화 현상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ASEAN5와 인도 등은 성장 기대가 높은 반면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발 내수 부진 장기화가 우려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 등의 영향으로 당사국 및 주변국 경제는 회복 지연 또는 성장세 둔화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교역은 반도체 및 IT 경기 회복세 지속, 유로존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국 경기 둔화와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deflation), 확전(擴戰)에 의한 글로벌 공급망 혼란 및 인플레 재현 등의 리스크가 결집돌이 될 수도 있다.

(국내 경기: 변곡점 진입)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수출 경기 회복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개선세가 멈추면서 향후 수출 환경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성장 추세가 변화할 수 있는 변곡점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동시에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개선세는 멈춘 상황이다. 지난 7월 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8.4p로 5개월 연속 하락 중인 가운데 미래 경기 향방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3년 4월 98.6p로 저점을 형성한 후 상승 국면을 유지해 왔으나 7월에 멈춘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국내 경제는 수출 환경의 변화,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성장 추세가 변화할 수 있는 변곡점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수출 경기 회복세 강화 및 금리 인하가 동시에 현실화된다면 소비 및 투자심리 개선으로 내수가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U'자형의 완만한 성장 경로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국 경제가 경착륙하고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 또는 기대 이하 수준일 경우에는 내외수 동반 부진으로 성장경로로의 복귀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2025년 한국 경제 전망

2025년 한국 경제는 2.2% 정도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으로 상반기와 하반기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표상으로는 상저하고로 전망되지만, 이는 올해 상반기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경기 흐름 자체는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과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에 따르는 소비자 심리의 개선, 양호한 고용여건 유지 및 기저효과 등으로 2024년에 비해 다소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단, 자산시장 불안정 및 주력 소비층 일자리 불안 등과 같은 현상이 유지된다면 민간소비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건설투자는 금융조달 비용 하락과 부동산 PF 부실 문제의 해결 진전,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 회복세 강화 등 전반적인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와 주택 건설 인허가 감소, 미분양 문제 해결 지연 등으로 인해 회복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금리 하락에 따르는 자본조달 환경 개선이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 및 글로벌 ICT 경기의 회복세 지속과 수출 증가세 유지 등도 설비투자 회복세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은 2024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세계경제가 중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국 수입 수요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ICT 경기 회복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가세는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은 기저효과, 자본조달 환경 개선 및 ICT 경기 개선세 지속 등을 배경으로 한 설비투자 수요 증대에 따라 증가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수출 경기 회복 지속에도 불구하고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수지 악화로 흑자규모는 2024년 대비 소폭 확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미약한 내수 경기 회복세와 원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상기후,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르는 공급망 혼란, 기대 이상의 국내외 수요 확대 등으로 물가 불안정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용은 수출 증가세에 따르는 제조업 고용 확대, 건설업 고용 여건 개선 등으로 실업률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공일자리 축소 등의 영향으로 신규 취업자 증가 규모는 축소될 전망이다.

< 2025년 한국 경제 전망 >

구 분	2023년 연간	2024년			2025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	1.4	2.8	2.4	2.6	1.9	2.3	2.2
민간소비 (%)	1.8	1.0	2.1	1.6	2.1	1.9	2.0
건설투자 (%)	1.5	0.8	0.7	0.8	-0.3	1.5	0.6
설비투자 (%)	1.1	-2.3	4.1	0.9	5.3	2.4	3.8
수출증가율 (%)	-7.5	9.1	9.3	9.2	6.5	3.5	5.0
소비자물가 (%)	3.6	2.8	2.3	2.5	2.2	2.1	2.1
실업률 (%)	2.7	3.1	2.6	2.8	2.9	2.6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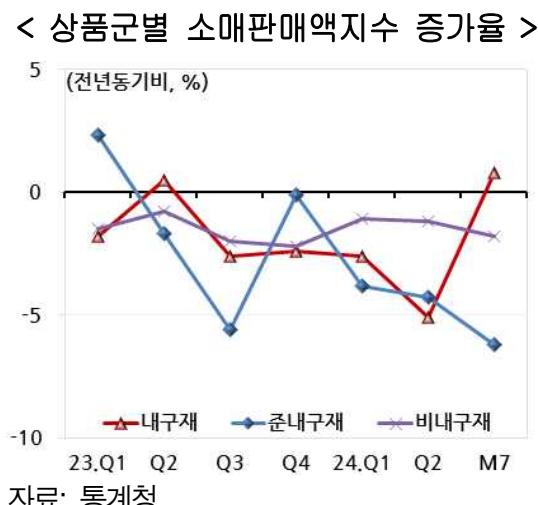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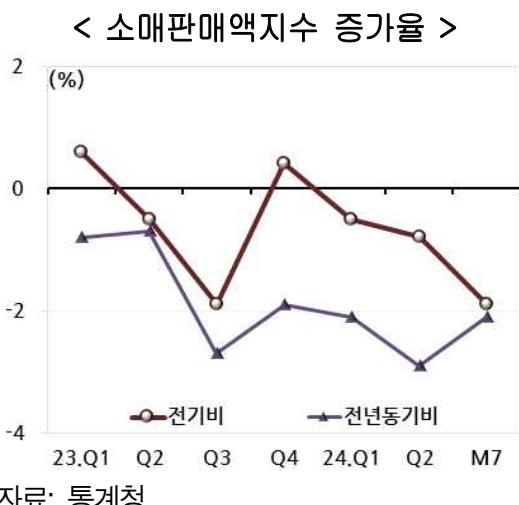
주 : 실적치는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2024년, 2025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2025년 한국 경제는 2024년과 유사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외수 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에 따라 성장경로가 달라질 가능성성이 큰 만큼 적절한 정책 대응을 통해 경기 회복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경기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적 정책 대응을 통해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내수 회복력을 복원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성장경로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둘째,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사전적인 대응책 마련과 외교적 노력 지속 등을 통해 국내 수출은 물론 산업과 기술 및 기업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 및 고용창출력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환경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넷째,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경기의 급변동에 따르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출 안전망 확보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다섯째, 경기 회복 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청년층,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정책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¹⁾

- (소비 침체 국면 진입) 고금리, 고물가, 소득 정체 등의 구매력 여건이 개선되지 못함에 따라 소비 부문의 침체가 지속
 - 재화 중심의 소비 지표인 7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감소
 - 소매판매 전월비 증가율은 6월 1.0%의 증가세에서 7월에 △1.9%의 감소세로 전환됨
 -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QoQ, MoM): 1분기 △0.5%, 2분기 △0.8%, 4월 △0.6%, 5월 △0.2%, 6월 1.0%, 7월 △1.9%
 -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1분기 △2.1%, 2분기 △2.9%, 4월 △2.0%, 5월 △2.8%, 6월 △3.6%, 7월 △2.1%
 - 소비 항목별로 내구재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준내구재, 비내구재 소비가 모두 침체를 지속
 - 내구재 소비는 승용차, 가전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통신기기·컴퓨터 등이 증가함
 - ※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1분기 △2.6%, 2분기 △5.1%, 4월 △2.1%, 5월 △4.5%, 6월 △8.3%, 7월 0.8%
 - ※ 비내구재판매액지수 증가율(YoY): 1분기 △1.1%, 2분기 △1.2%, 4월 △1.4%, 5월 △1.2%, 6월 △1.1%, 7월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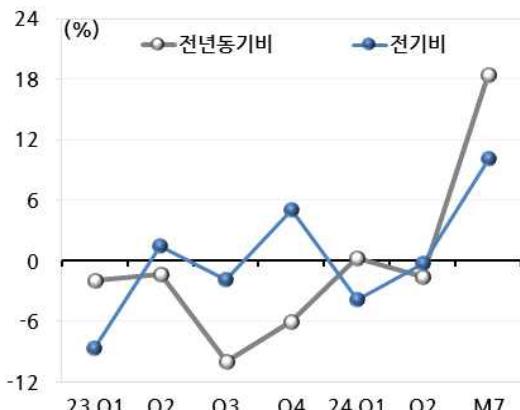


1) 본절의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 '내수 회복 모멘텀의 실종 속 수출 경기 회복력의 약화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4년 3분기)', 경제주평 24-15호, 2024년 9월 6일 자료를 인용한 것임.

○ (비ICT 설비투자 확대) 설비투자의 핵심 부문인 ICT 투자가 급감하고 비ICT 투자가 크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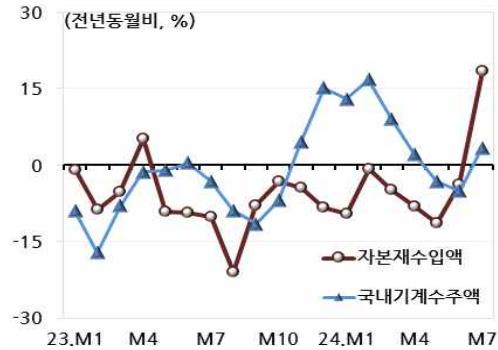
- 7월 설비투자는 비ICT 투자가 늘어 전년동월비 및 전월비 기준 모두 증가
 - 7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전년동월비(23년 7월 대비) 18.5%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24년 6월 대비)로도 10.1% 증가함
 -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1분기 0.3%, 2분기 △1.5%, 4월 0.4%, 5월 △1.4%, 6월 △3.3%, 7월 18.5%
 - 다만, 그동안 설비투자를 주도했던 ICT투자가 7월에 들어 전년동월 기준으로 △12.6%의 감소세로 전환됨
 - ※ ICT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1분기 0.4%, 2분기 6.1%, 4월 6.4%, 5월 △3.1%, 6월 14.4%, 7월 △12.6%
- 한편,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과 자본재수입액증가율이 모두 증가하면서 설비투자의 반등 가능성을 높여주는 상황
 - 자본재수입액은 1년여의 감소세를 끝내고 7월에 들어 증가세로 반전됨
 - ※ 자본재수입액증가율(YoY): 4월 △8.2%, 5월 △11.4%, 6월 △3.9%, 7월 18.4%
 - 국내기계수주는 6월 감소세에서 7월에 증가세로 전환됨
 - ※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YoY)²⁾: 4월 △12.7%, 5월 5.4%, 6월 △7.9%, 7월 12.7%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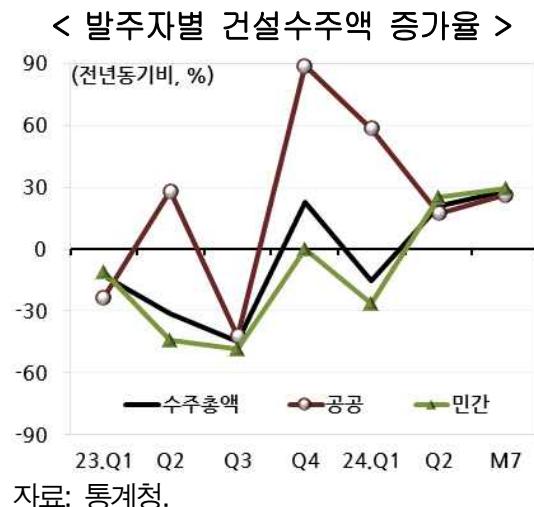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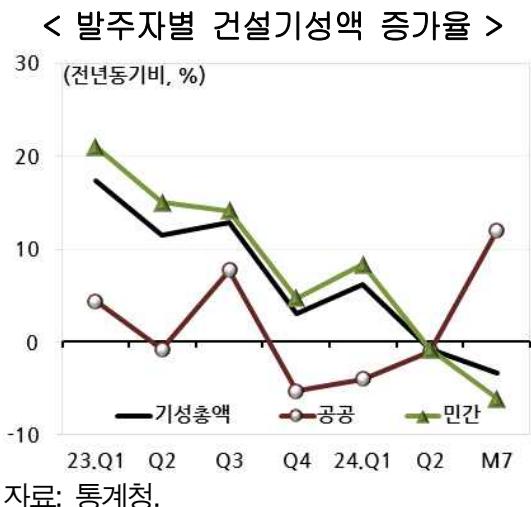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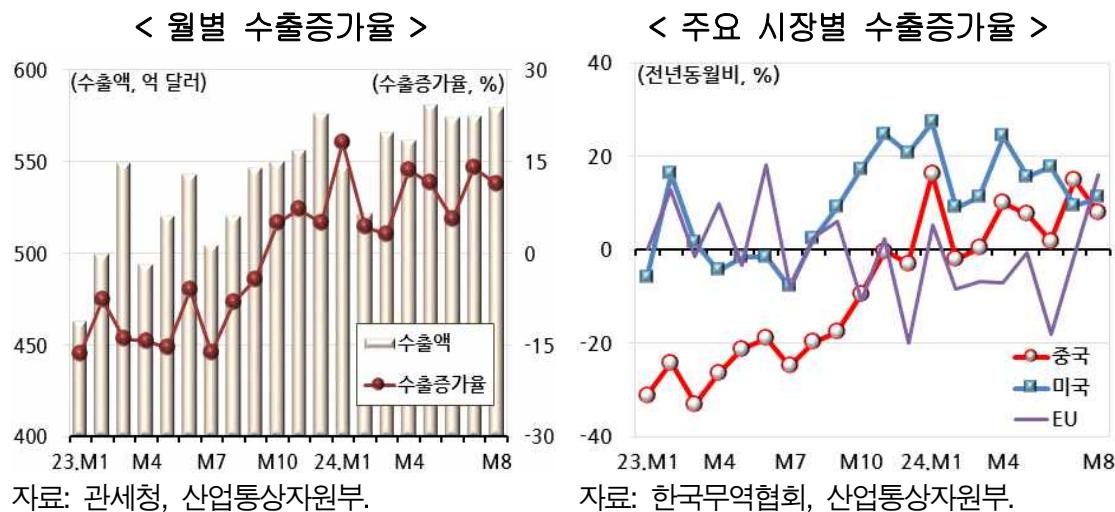
주: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2) 국내기계수주액(선박·선박용내연기관제외) 증가율의 실제치이며, 그림은 3개월 이동평균치.

- (건설기성 침체 속 건설수주 반등)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이 감소세를 지속 중인 가운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반등하는 모습
 -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공공 부문이 증가하였으나 민간 부문이 감소세를 지속
 - 7월 건설기성액 증가율(전년동월비)은 △3.4%로 5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함
 - ※ 건설기성 증가율(YoY): 1분기 6.2%, 2분기 △0.8%, 4월 2.5%, 5월 △1.1%, 6월 △3.3%, 7월 △3.4%
 - 빌주자별로는 공공 부문이 반등하는 가운데, 민간 부문은 감소세를 지속함
 - ※ 공공건설기성 증가율(YoY): 1분기 △4.0%, 2분기 △1.0%, 4월 △1.4%, 5월 △4.1%, 6월 1.7%, 7월 12.0%
 - ※ 민간건설기성 증가율(YoY): 1분기 8.3%, 2분기 △0.8%, 4월 3.4%, 5월 △0.4%, 6월 △5.0%, 7월 △6.1%
 - 한편,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7월에 들어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증가세를 기록
 - 7월 수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28.4%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 ※ 건설수주 증가율(YoY): 1분기 △15.6%, 2분기 20.9%, 4월 51.2%, 5월 △16.6%, 6월 36.9%, 7월 28.4%
 - ※ 공공건설수주 증가율(YoY): 1분기 58.4%, 2분기 17.3%, 4월 23.8%, 5월 △25.4%, 6월 46.2%, 7월 26.2%
 - ※ 민간건설수주 증가율(YoY): 1분기 △26.3%, 2분기 25.0%, 4월 64.7%, 5월 △10.1%, 6월 33.5%, 7월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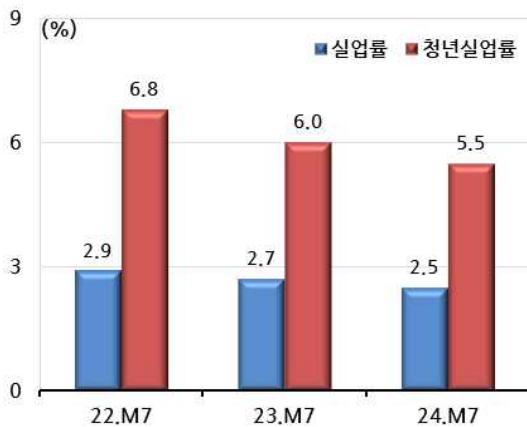
-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 반도체 수출 회복 강화, 미국 시장의 호조, 전년도 기저효과의 영향 등으로 수출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
 - 8월 수출증가율은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23년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8월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1.4%로 7월(13.9%)보다는 증가율이 다소 낮아짐
※ 수출액 증가율: 2월 4.4%, 3월 3.1%, 4월 13.6%, 5월 11.5%, 6월 5.6%, 7월 13.9%. 8월 11.4%
 - 한편, 12대 주력 품목 중 IT(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와 선박을 제외할 경우 8월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6%로 감소함
 - 지역별로는 對미국 수출이 호조를 지속 중인 가운데 對중국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경기 양극화가 뚜렷한 모습
 - 對중국 수출은 3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 對중국 수출증가율: 3월 0.4%, 4월 10.0%, 5월 7.6%, 6월 1.9%, 7월 14.9%. 8월 7.9%
 -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전년동월비 38.8%), 무선통신기기(50.4%), 컴퓨터(183.2%), 선박(80.0%) 등이 호조를 보였으나, 자동차(△4.3%), 이차전지(△4.5%), 철강제품(△1.7%) 등은 부진한 모습을 보임
 - 특히, 그동안 우리 수출의 베텁목이 되었던 자동차 수출이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은 불안 요인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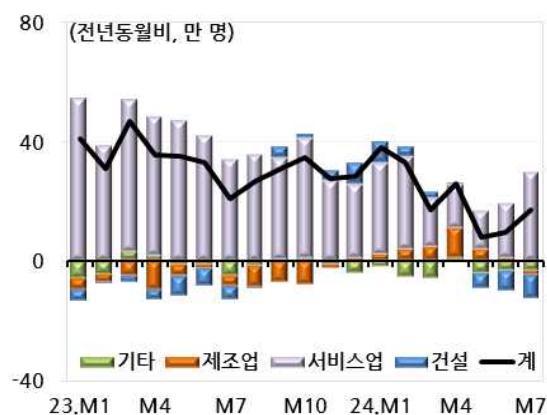
- (외형상 고용시장 개선 속 질 좋은 일자리 축소) 전반적인 실업률 개선과 일자리 증가는 긍정적으로 생각되나, 산업별로 제조업 및 건설업, 연령계층별로 청년층의 고용창출력이 하락하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평가

- 7월 실업률은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며 구직단념자도 감소세로 전환
 - 7월 실업률은 2.5%로 전년동월('23년 7월 2.7%)보다 개선되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³⁾도 '23년 7월 38.8만 명에서 '24년 7월 38.1만 명으로 감소함
- 7월 신규취업자(취업자 수 증감)는 전년동월비 17.2만 명으로 6월의 9.6만 명보다 증가하였는데, 이는 서비스업과 60세 이상 연령층이 주도
 - 7월 중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비)은 17.2만 명으로 6월(9.6만 명)보다 상승함
 - ※ 취업자 증감(YoY): 3월 17.3만 명, 4월 26.1만 명, 5월 8.0만 명, 6월 9.6만 명, 7월 17.2만 명
 - 7월 중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비)은 제조업 △1.1만 명, 건설업 △8.1만 명, 서비스업 29.6만 명임
 - 다만, 7월 취업자수 증가의 대부분은 60세 이상 연령층이 주도(전년동월비 27.8만 명)하고 있으며, 청년층 일자리는 축소됨(15~29세 △14.9만 명)

< 7월 기준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



자료: 통계청.

< 주요 산업별⁴⁾ 취업자 증감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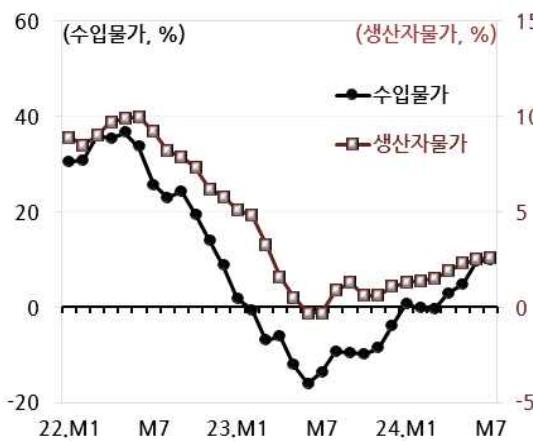
3)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중 구직단념자는 취업 의사와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정한 자유로 이전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중 1년 안에 구직경험이 있는 자를 의미.

4) 기타는 광업, 유틸리티,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합계.

- (한은 목표치 소비자물가 상승률 2.0% 도달) 고유가,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 가 상승 등의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하였으나, 내수 침체로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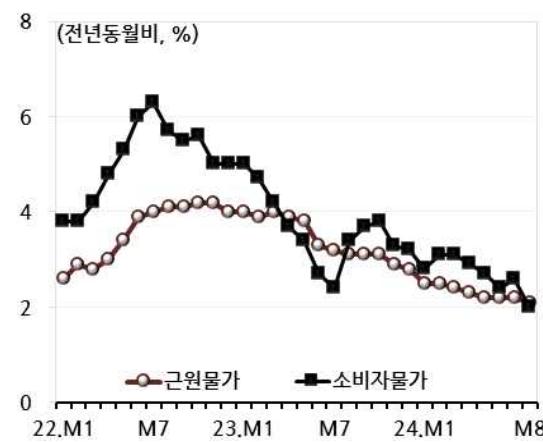
- 7월 중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가 모두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
 -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4월에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됨
 - ※ 수입물가상승률(YoY): 3월 △0.5%, 4월 2.9%, 5월 4.7%, 6월 9.6%, 7월 9.8%
 -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석탄 및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공업제품이 크게 올라 6월 전년동월대비 2.5%에서 7월에 2.6%로 증가함
 - ※ 생산자물가상승률(YoY): 3월 1.5%, 4월 1.9%, 5월 2.3%, 6월 2.5%, 7월 2.6%
-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한은 물가안정 목표치인 전년동월대비 2.0%를 기록
 -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농산물(전년동월대비 3.6%) 및 전기·수도·가스(전년동월대비 3.6%) 상승 폭이 컸으나,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률 둔화(전년동월대비 1.4%)로 2.0%를 기록함
 - ※ 소비자물가상승률(YoY): 4월 2.9%, 5월 2.7%, 6월 2.4%, 7월 2.6%, 8월 2.0%
 - 또한 일시적 변동 요인을 제외한 8월 근원물가상승률도 2.1%로 하락함
 - ※ 근원물가상승률(YoY): 4월 2.3%, 5월 2.2%, 6월 2.2%, 7월 2.2%, 8월 2.1%

<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상승률 >



자료: 한국은행.
주: 전년동월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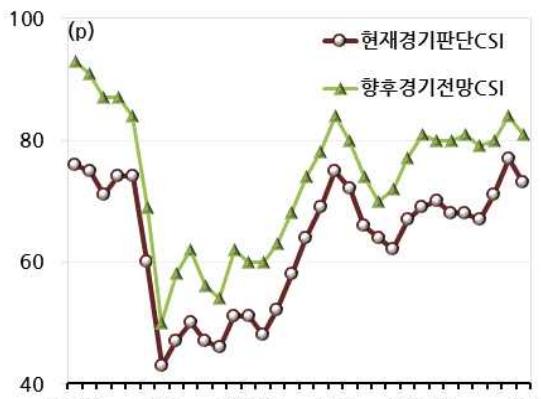
<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



○ (민간주체의 심리 악화) 최근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미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계 심리와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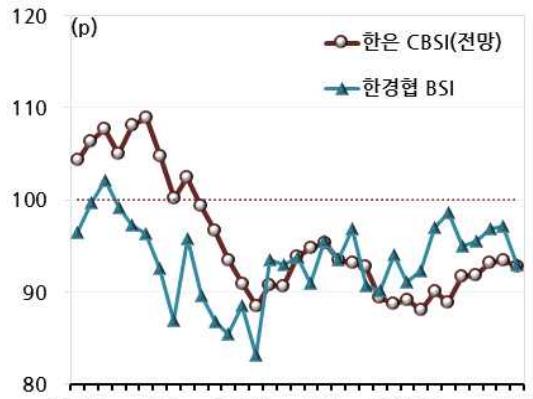
- 가계의 현재 경기 판단이나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CSI는
 - 24년에 들어 반등하다가 최근에는 개선세가 미약한 모습
 - 가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CSI는 8월 73p로 7월(77p)보다 하락
 - ※ 현재경기판단 CSI: 4월 68p, 5월 67p, 6월 71p, 7월 77p, 8월 73p
 - 또한, 향후경기전망 CSI도 7월 84p에서 8월에 81p로 하락하면서 미래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긍정적 관점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 ※ 향후경기전망 CSI: 4월 81p, 5월 79p, 6월 80p, 7월 84p, 8월 81p
- 한경협 BSI와 한은 CBSI 등의 기업심리지수⁵⁾는 최근 대내외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9월에 들어 큰 폭으로 하락
 - 한경협 BSI(전망)는 8월 97.1p에서 9월에 92.9p로 크게 하락함
 - ※ 한경협 BSI(전망): 4월 98.6p, 5월 94.9p, 6월 95.5p, 7월 96.8p, 8월 97.1p, 9월 92.9p
 - 또한, 한은 9월 CBSI(전산업)도 92.7p로 8월(93.4p)에서 하락함
 - ※ 한은 CBSI(전산업): 4월 88.8p, 5월 91.7p, 6월 91.8p, 7월 93.1p, 8월 93.4p, 9월 92.7p

< 현재경기판단 및 향후경기전망 CSI >



자료: 한국은행.

<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자료: 한국은행, 한국경제인협회.

5) 한경협 BSI(600대 기업 대상)는 대기업의 시작을, 한은 CBSI(약 3,000여 개 기업 대상)는 중소기업의 시작을 더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

2. 전망의 배경

- (글로벌 경기: 완만한 개선) 글로벌 피봇(pivot)에 의한 금융 및 투자 환경 개선, 주요국 경기 진작책 추진, 제조업 경기 개선 등으로 세계 경제는 중성장 기조 유지 전망. 단, 지정학적 리스크, 美 대선 향방 등 불확실성 요인은 상존
- 선진국 경기 : 본격적인 통화정책 전환과 적극적인 경기 진작책이 동반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미국의 경우, 지난해 경기 고점을 형성한 기저효과 등으로 성장률이 완만하게 둔화하는 소프트패치(soft patch) 진입 전망
 - 유로지역과 일본은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와 수출 등 외수가 동반 회복되면서 경기 개선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신흥국 경기 : 글로벌 교역의 증가세 유지로 아시아 신흥국 중심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 간 성장 차별화 현상은 유지될 전망
 - 글로벌 교역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ASEAN5,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 중심의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단,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발 내수 부진 장기화가 우려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 등으로 국가 간 성장 차별화 현상은 유지될 전망
- 세계 교역 : 반도체 및 IT 경기 회복세 지속, 유로존 수요 확대 등으로 글로벌 교역 증가세 유지가 기대되나, 미국 경기둔화와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deflation), 확전(擴戰)에 의한 글로벌 공급망 혼란 등의 리스크도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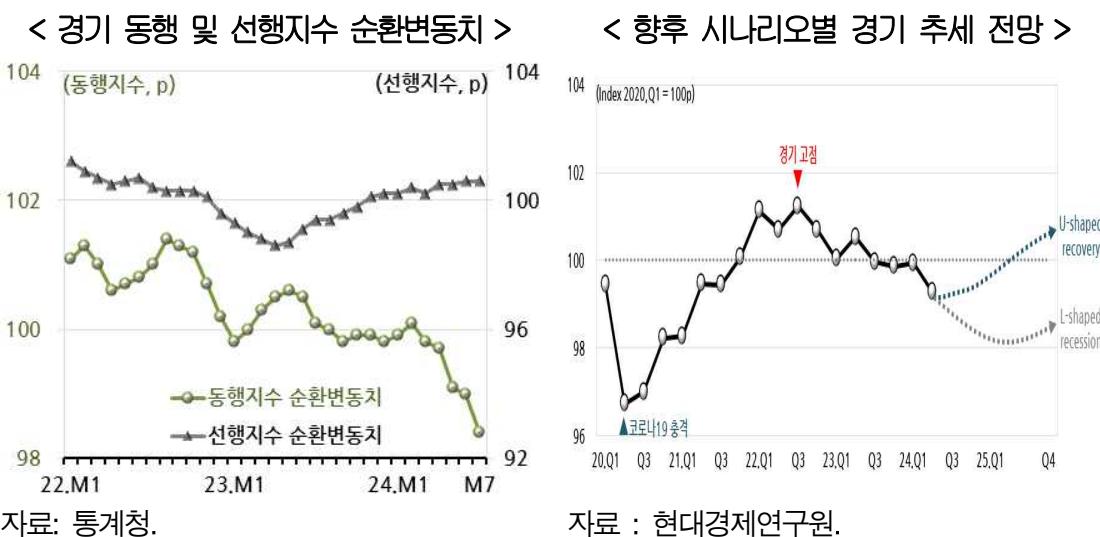
< 주요 전망기관들의 주요국 및 경제권역별 2025년 경제전망 >

구분	IMF('24.07)		OECD('24.05)		World Bank('24.06)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	3.2	3.3	3.1	3.2	2.6	2.7
선진국	1.7	1.8	-	-	1.5	1.7
미국	2.6	1.9	2.6	1.8	2.5	1.8
유로지역	0.9	1.5	0.7	1.5	0.7	1.4
일본	0.7	1.0	0.5	1.1	0.7	1.0
신흥개도국	4.3	4.3	-	-	4.0	4.0
중국	5.0	4.5	4.9	4.5	4.8	4.1
인도	7.0	6.5	6.6	6.6	6.6	6.7
브라질	2.1	2.4	1.9	2.1	2.0	2.2
러시아	3.2	1.5	2.6	1.0	2.9	1.4
세계 교역증가율	3.1	3.4	2.3	3.3	2.5	3.4

자료 : IMF, OECD, World Bank.

○ (국내 경기: 변곡점 진입)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수출 경기 회복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개선세가 멈추면서 향후 수출 환경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성장 추세가 변화할 수 있는 변곡점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수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개선세는 멈춘 상황
 - 지난 7월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8.4p로 5개월 연속 하락 중인 가운데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3년 4월 98.6p로 저점을 형성한 후 상승 국면을 유지해 왔으나 7월에 멈춘 것으로 판단
- 향후 국내 경제는 수출 환경의 변화,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성장 추세가 변화할 수 있는 변곡점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향후 수출 경기 회복세 강화 및 금리 인하가 동시에 현실화된다면 소비 및 투자심리 개선으로 내수가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U'자형의 완만한 성장 경로를 보일 것으로 기대
 - 다만, 미국 경제의 경착륙 현실화, 금리 인하의 지연 또는 기대 이하의 수준일 경우 내외수 동반 부진으로 성장 경로로의 복귀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3. 2025년 한국 경제 전망

- 2025년 한국경제는 2.2% 정도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으로 상반기와 하반기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 경제성장률 : 성장을 둔화, 연간 2.2% 전망. 지표상 하반기(2.3%)가 상반기(1.9%)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올해 상반기의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인 상·하반기 경기 흐름은 유사할 것으로 판단
 - 기저효과로 경제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전망
 - 지표상 하반기 성장률(2.3%)이 상반기(1.9%)보다 높아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이 예상되나, 이는 2024년 상반기의 높은 성장률(2.8%)에 대한 기저효과에 기인
 - 실질적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가 유사한 경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 단, 미국의 금리 인하 수준과 경제 침체 여부, 중국 경제의 회복 정도, 지정학적 여건과 글로벌 공급망의 향방, 글로벌 인플레 재현 여부에 따라 국내 경기 흐름 및 회복세가 좌우될 가능성이 큼
 - 민간소비 : 소폭 회복. 연간 2.0%(상반기 2.1%, 하반기 1.9%)
 - 금리 하락과 가계 가치분소득 확대에 따르는 소비자 심리의 개선, 양호한 고용여건 유지 및 기저효과 등으로 2024년에 비해 다소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 단, 자산시장 불안정 및 주력 소비층 일자리 불안 등과 같은 현상이 유지된다면 민간소비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건설투자 : 회복세 둔화. 연간 0.6%(상반기 -0.3%, 하반기 1.5%)
 - 금융조달 비용의 하락과 부동산 PF 부실 문제의 해결 진전,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 회복세 강화 등으로 전반적인 여건 개선이 기대됨
 - 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와 주택 건설 인허가 감소, 그리고 미분양 문제 해결 지연 등으로 인해 회복세는 둔화될 전망

- 설비투자 : 회복세 강화. 연간 3.8%(상반기 5.3%, 하반기 2.4%)
 ·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조달 환경 개선이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 및 글로벌 ICT 경기의 회복세 지속과 수출 증가세 유지 등도 설비투자 회복세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수출입 : 수출 증가세 둔화 및 수입 증가세 확대 전망. 수출 연간 5.0%(상반기 6.5%, 하반기 3.5%), 수입 연간 4.4%(상반기 5.9%, 하반기 3.0%)
 · 2025년 수출 증가율은 2024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될 전망
 · 수출의 경우, 세계경제가 중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국 수입 수요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ICT 경기 회복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
 · 수입은 기저효과, 자본조달 환경 개선 및 ICT 경기 개선세 지속 등을 배경으로 한 설비투자 수요 증대에 따라 증가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

- 경상수지 : 소폭 증가 전망. 연간 750억 달러(상반기 410억 달러, 하반기 340 억 달러)
 · 경상수지는 수출 경기 회복 지속에도 불구하고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수지 악화로 흑자 규모는 2024년 대비 소폭 확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물가 : 하향 안정화 지속. 연간 2.1%(상반기 2.2%, 하반기 2.1%)
 · 미약한 내수 경기 회복세와 원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 등으로 소비자물가의 하향 안정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

- 고용 : 고용시장 소폭 둔화. 실업률 연간 2.7%(상반기 2.9%, 하반기 2.6%), 신규 취업자수 연간 17만 명(상반기 20만 명, 하반기 14만 명)
 · 제조업 고용 확대, 건설업 고용 여건 개선 등으로 실업률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공일자리 축소 등의 영향으로 신규 취업자 증가 규모는 축소될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의 2025년 한국 경제 전망표 (2024.9) >

구 분	2023 연간	2024년			2025(E)			연간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1.4	2.8	2.4	2.6	1.9	2.3	2.2
	민간소비 (%)	1.8	1.0	2.1	1.6	2.1	1.9	2.0
	건설투자 (%)	1.5	0.8	0.7	0.8	-0.3	1.5	0.6
	설비투자 (%)	1.1	-2.3	4.1	0.9	5.3	2.4	3.8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355	377	360	737	410	340	750
	무역수지 (억 달러)	-103	232	208	440	266	232	498
	수출증가율 (%)	-7.5	9.1	9.3	9.2	6.5	3.5	5.0
	수입증가율 (%)	-12.1	-6.4	8.2	0.6	5.9	3.0	4.4
소비자물가상승률 (%)		3.6	2.8	2.3	2.5	2.2	2.1	2.1
실업률 (%)		2.7	3.1	2.6	2.8	2.9	2.6	2.7
취업자수 증감(만 명)		33	22	19	21	20	14	17

4. 시사점

- 2025년 한국경제는 올해와 유사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외수 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에 따라 성장경로가 달라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적절한 정책 대응을 통해 경기 회복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첫째, 경기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적 정책 대응을 통해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내수 회복력을 복원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성장경로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 통화정책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정도와 국내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국내 경제가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성장경로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도 매우 중요하므로 국내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대외적으로는 이미 미 연준(FED)의 금리 인하 이전에 ECB(European Central Bank, 유럽중앙은행), BOE(Bank of England, 영란은행), BOC(Bank of Canada, 캐나다중앙은행) 등이 자국 상황에 맞추어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내적으로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전반의 부진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안정적인 성장경로를 유지할 수 있는 금융 여건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함
- 재정정책은 성과 중심의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의적절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국내 경기 및 세입 흐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세출 계획이 무난히 추진될 수 있어야 하며, 성과 검토를 통해 적절한 정책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함

둘째,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사전적인 대응책 마련과 외교적 노력 지속 등을 통해 국내 수출은 물론 산업과 기술 및 기업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이나 기술, 무역은 물론 미국 현지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 다방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시나리오별 미국 자국우선주의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외교력을 활용해 예상되는 불이익의 최소화를 꾀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도 국내 산업이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미국 기업과의 협업 강화, 미국 현지 직접투자 확대, 우회 진출 경로 확보 등과 같은 국내 기업들의 리스크 최소화 노력이 국내 투자와 고용, 부가가치 등의 유출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함

셋째,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 및 고용창출력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환경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력을 높임과 동시에 고용, 소득, 소비 등으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 고리 형성을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
- 기업 관련 규제 완화 노력 지속,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금융·세제상 지원 확대, 기업인의 사기 진작 정책, 노사 관계 안정 등의 패키지형 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
- 또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최근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에 대한 보조금 확대도 고려해야 할 것임

넷째,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경기의 급변동에 따르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출 안전망 확보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 특정 품목에 의존하는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해 경제외교 성과의 현실화를 통한 구체적 방안 추진, 수출 주체인 민간 및 관련 정부·공공기관 간 의사소통 활성화, 기민한 정책 추진 체제 확보 등 민관 수출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산업, 방위산업, 식품과 화장품 및 가전을 포함한 소비재 등의 수출 확대는 물론 한류(韓流)와 이를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망라해 차세대 K-콘텐츠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수출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한국 자체가 상품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울러 원유, 광물, 곡물 등 경제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원자재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급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함

다섯째, 경기 회복 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청년층,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정책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수단으로 추진되는 재정적 지원은 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 건설경기의 부진 장기화 극복을 위해 건설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 부동산 실수요자의 시장 접근성 강화, PF 시장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 등을 도모해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 혼란을 예방함과 동시에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함 **HRI**

주 원 경제연구실장 (2072-6235, juwon@hri.co.kr)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이 택 근 연 구 위 원 (2072-6366, tklee@hri.co.kr)
 신 지 영 선 임 연 구 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선 임 연 구 원 (2072-6248, syroh@hri.co.kr)